

아버지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양육 참여가 어머니 후속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

라지영(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수료)

허가영(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1. 서론

육아지원제도는 저출생 문제를 통틀어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대책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정부의 막대한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구문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육아지원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거나 출산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육이 갖는 긍정적 가치와 자녀와의 일상 공유를 통한 만족도 등으로 인해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높아지는 최근의 경향을 눈여겨 볼만하다. 생계형 아버지의 이미지가 지배적인 우리나라에서 양육자로서의 정체성을 견비하도록 사회화된 아버지가 증가하는 현상은 정책이 가정문화의 변화와 연계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중에도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의 확대가 아버지의 돌봄권을 확립하며 더 나아가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한 주요 대책으로 언급되는 것은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가 어머니 중심의 양육문화를 바꾸고, 출산을 저하를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들은 일과 가정 간의 양립을 위한 긴장과 갈등을 경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김용훈, 이경숙, 2022), 남성의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제도의 이용률은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 이러한 경우, 단독 생계부양의 가정이 처하게 되는 고립 육아 등의 환경은 후속출산을 기피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요인(유해미, 정주영, 양유진, 2013; 이정원, 유해미, 김문정, 2014)이 될 수 있다. 아버지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사용을 통한 양육 참여의 기회와 시간의 증가가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첫 아이를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후속출산에 영향을 주는 아버지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아버지 양육 참여, 어머니 후속출산 계획의 관계를 규명하고, 관계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저출산 대책으로써의 아버지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시사점

을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문제 1. 아버지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아버지 양육 참여, 어머니 후속출산 계획의 전반적 경향 및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버지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와 어머니 후속출산 계획에서 아버지 양육 참여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에서 제공하는 1차년도 본 조사 데이터 중 1,032가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는 한국 영유아교육·보육패널 1차(2022) 아버지용 질문지의 32번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만족도 및 중요도’ 문항 중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문항을 사용하였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홍성례(1995)가 개발하고 한국 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것을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에서 최종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 참여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은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를 위해 연구진이 개발한 한국 영유아교육·보육패널 1차(2022) 어머니용 질문지의 15번 ‘후속출산 계획 여부’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변인의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았으며, Pearson 상관분석, 로지스틱 매개효과 분석, 붓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변인들의 상관관계와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아버지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아버지 양육 참여와 어머니 후속출산 계획의 전반적 경향 및 상관관계

아버지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어머니 후속출산 계획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중 적어도 하나의 제도를 이용해 본 아버지는 35.3%, 이용해 보지 않은 아버지는 64.7%였으며,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 중 ‘낳겠음(혹은 현재 임신 중)’의 비율은 51.4%, ‘낳지 않겠음’의 비율은 48.6%였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 정도의 평균은 4.21이며 표준편차는 0.73으로 나타났다.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는 아버지 양육 참여($r=.08, p<.05$)와 양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아버지 양육 참여는 어머니 후속출산 계획($r=.08, p<.05$)과 양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아버지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는 어머니 후속출산 계획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를 하위제도별로 나누어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중 육아휴직($r=.07, p<.05$)만이 아버지 양육 참여에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모든 제도에서 아버지 양육 참여($r=.08, p<.05$)는 어머니 후속출산 계획과 양적 상관을 나타냈다. 한편,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중 시차출퇴근제($r=-.10, p<.01$)와 재택근무제($r=-.07, p<.05$)는 어머니 후속출산 계획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2. 아버지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와 어머니 후속출산 계획에서 아버지 양육 참여의 매개효과

아버지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아버지 양육 참여, 후속출산 계획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제도 이용 여부가 아버지 양육 참여에($B=.12, p<.05$), 아버지 양육 참여가 어머니 후속출산 계획에($B=.22, p<.05$)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가 어머니 후속출산 계획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붓스트래핑 검증 결과, 하한한계와 상한한계의 범위가 .003 ~ .061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즉,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는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육아지원제도 이용을 통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아질 경우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이 있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버지 육아휴직 이용 여부, 아버지 양육 참여, 후속출산 계획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 육아휴직 이용 여부가 아버지 양육 참여에($B=.14, p<.05$), 아버지 양육 참여가 어머니 후속출산에($B=.21, p<.05$)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육아휴직 이용 여부가 어머니 후속출산 계획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붓스트래핑 검증 결과, 하한한계와 상한한계의 범위가 .001 ~ .067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즉, 아버지의 육아휴직 이용 여부는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육아휴직 제도 이용을 통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아질 경우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이 있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와 어머니 후속출산 계획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미미하나, 아버지 양육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어머니 후속출산 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가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를 이용할수록 아버지 양육 참여도가 높으며, 아버지 양육 참여도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후속출산을 계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와 어머니 후속출산 계획에서 아버지 양육 참여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아버지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는 아버지 양육 참여를 매개로 할 때만 어머니 후속출산 계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효과가 있었다. 이는 저출산 대책 중 아버지의 시간과 관련된 육아지원제도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 등이 병행될 때만 제도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아버지가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수록 아버지 양육 참여도가 높으며, 아버지 양육 참여도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후속출산을 계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육아휴직 이용 여부와 어머니 후속출산 계획에서 아버지 양육 참여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아버지의 육아휴직은 아버지 양육 참여를 매개로 할 때만 어머니 후속출산 계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효과가 있었다. 육아휴직이 아버지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중 유일하게 양육 참여도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를 함께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양육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후속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측면에서 아버지 육아휴직 이용 독려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아버지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가 양육 참여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근무시간이 짧아지는 것이 양육 참여의 증가를 이끄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며, 근로시간 줄이기를 통한 양육 시간 확보 등의 단순한 제도적 지원보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생활방식과 어려움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 더 큰 지지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아버지가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제를 이용하는 경우 오히려 어머니가 후속출산을 계획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경제적 자원보다는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의 양육 참여를 통한 정서적 교감이나 긍정적 가치 인식 등의 비경제적 교환자원 제공이 출산 의도를 높인다는 이경은, 강희송, 안혜경(2023)의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온전한 양육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단순히 업무와 양육을 병행하도록 할 경우, 제도의 시행 목표인 ‘일과 가정의 양립’에 큰 효과를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곧 후속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를 개선하고 실효성 높은 육아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 제언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은 양육 참여도를 높이고, 아버지의 높은 양육 참여도는 어머니가 후속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을 높인다. 즉, 후속출산 계획을 높이기 위한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의 방향은 제도 지원을 통해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문화 조성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양성평등한 인식 개선이 함께 동반될 때 유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버지의 육아휴직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를 실제적으로 증가시키므로 이용에의 독려가 필요하다. 셋째, 근무량을 줄이지 못하고 장소나 출퇴근 시간의 편의성만을 제공하는 육아지원제도는 업무와 동시에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후속출산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일과 육아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피하고 온전히 자녀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겠다.